



1976

용산역 광장에서 귀성열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승객들



한가위 풍경

글 조보희 기자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석은 설과 함께 양대 명절이자 한 해 농사를 수확해 나누는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가족 친지가 고향 집에 모여 회포를 풀어내는 정겨운 만남의 장이기도 하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불거리도 많아 여행하기도 좋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아진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귀성객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탓에 혼잡과 정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같은 역사적 장면이 있었는가 하면 자연재해로 명절을 망친 적도 있죠. 추석을 맞아 코로나로 지친 마음이 설렙니다. 지나온 추석 풍경을 모아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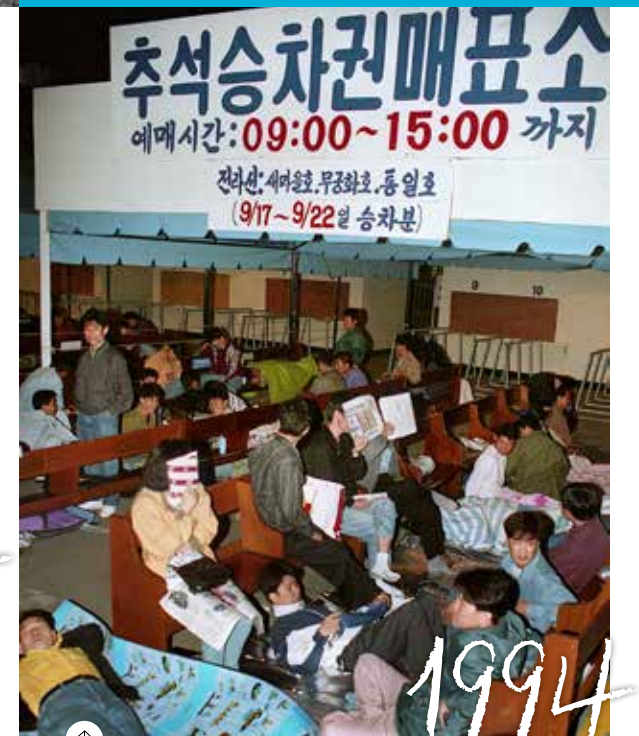
1975



추석을 앞둔 대구 칠성시장 (국가기록원 제공)

1969

추석을 맞아 서울 망우리 공원묘지를 찾는 성묘객들로 주변 도로가 정체되고 있다. (한치규 제공)



귀성 열차표를 사려고 용산역 광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귀성객들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천하장사 결승전에서 이민기가 고경철을 뒤집기로 넘기고 있다.

1985

1994



1996



2010

평택의 다문화 가정 결혼 이민자들이 한가위를 앞두고 송편을 만들고 있다.



2016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비는 수원의 한 전통시장



2009

금강산 면화소에서 열린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남측 가족이 버스를 타고 떠나는 북측 가족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연합뉴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을 빚고 있다.
폭우로 유실된 강릉의 공원묘지에서 성묘객이 흙더미 속에서 찾아낸 조상 묘를 비맞으며 손절한 뒤에 절을 올리고 있다.



2010

추석을 앞두고 경주 무열왕릉에서 벌초 작업을 하고 있다.



2002



2020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승차권 예약 판매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안내문이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 게시됐다.



2021

파주시 임진각에서 북한 이탈 주민 가족이 북녘을 향해 준비한 추석 차례상